

하상주보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4년 2월 18일
제1988호

주임 신부: 김태진 베네딕토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 회장: 강세원 바오로

연령 회장: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사무실: 703 968 3010

팩스: 703 968 3013

주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이메일: sthasang@gmail.com

기도로 힘을 얻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리라.”(묵시 21,5)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님께서서는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또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마르 1,12-13)



사순 제1주일 (나해)

제 1 독서 창세 9,8-15 | 홍수에서 구원된 노아와 맺은 하느님의 계약

화답송 시편 25(24) | ◎ 주님, 당신 계약을 지키는 이들에게 당신의 모든 길은 자애와 진실이옵니다.

제 2 독서 1베드 3,18-22 | 이제는 세례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복음환호송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복음 마르 1,12-15 | 예수님께서서는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그때에 ¹²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¹³ 예수님께서서는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또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¹⁴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서는 갈릴래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¹⁵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사순 감사송

주님께서 받으신 유혹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십 일 동안 단식하시며

사순 시기 재계의 기쁨을 마련하시고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시어

저희도 악의 세력을 물리치도록 가르치셨나이다.

이제 저희는 새로운 마음으로 파스카 신비를 거행하며

마침내 영원한 파스카 잔치에 들어가리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복음 묵상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신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순 제1주일에 이 유혹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는 아마도 사순 시기에 새롭게 마음을 잡고 회개의 삶을 살아 보려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사탄의 유혹을 잘 이겨 내도록 도우려는 의도일 것입니다.

우리를 최악에 떨어뜨리려는 사탄의 유혹은 평생 계속될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유혹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여야 할 것은 유혹을 받는 것과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유혹을 느끼는 것은 우리 탓이 아니기에, 거기에 동조하지만 않는다면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오히려 유혹을 뿌리치고 이겨 낸다면 더욱 풍성한 은총을 받고 좀 더 성숙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은 유혹을 이겨 내는 몇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유혹을 받을 때, 곧바로 하느님께 의탁하고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떠올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큰 힘을 줍니다. 기도에 지치지 않는다면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그 유혹을 영성 지도 신부나 동반자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입 밖으로 언급된 유혹은 이미 절반은 정복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유혹이 계속 괴롭힌다면, 마지막 남은 방법은 저항하며 버티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끝까지 끈기 있게 저항한다면, 사실 사탄은 더 이상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 사탄은 유혹할 뿐이지 실제로 동조하거나 죄를 짓는 것은 ‘나’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지향과 결심을 가지고 사순 시기를 시작한 우리에게 많은 유혹이 덮쳐 올 것입니다. 이때 주님의 은총과 성인이 가르쳐 주신 방법들로 슬기롭게 이겨 내야 하겠습니다. <최정훈 바오로 신부>

하느님께서서는 광야를 통해 우리를 자유로 이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을 계시하실 때 언제나 다음과 같은 자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탈출 20,2). 자유로의 부르심은 힘든 요구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집트에 매여 있던 것처럼,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들에 우리는 참으로 그러한 속박에 매여 있음을 깨닫습니다. 사순 시기는 은총의 때입니다. 이 은총의 시기에, 광야는 다시 한번 우리 첫사랑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호세 2,16-17 참조).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백성을 형성하시어 우리를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죽음에서 삶으로 건너가는 파스카를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사순 시기는 회개의 시기, 자유의 시기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사순 제1주일에 기억하듯,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유로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광야는 다시는 노예 상태에 빠지지 않겠다는 개인적인 결심을 통하여 우리의 자유가 성숙해질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유혹과 탈출기가 분명히 보여 주듯이, 이는 어떤 싸움이 따르는 일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탈출 20,3). 하느님의 이 목소리에 원수와 그의 거짓말이 대적합니다. 파라오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우리 스스로 세운 우상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는커녕 무기력하게 만들고, 만남 대신 갈등을 낳습니다.

이제 행동할 때입니다. **사순 시기에 행동한다는 것은 또한 멈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 기도 안에서 멈추고, 사마리아인처럼 다친 형제나 자매가 있는 곳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기도와 자선과 단식은 서로 관계없는 세



가지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짓누르는 우상들과 우리를 구속하는 집착을 쫓아버리는, 개방과 자기 비움의 단일한 행위입니다. 그렇게 할 때 위축되고 외로웠던 마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우리는 형제자매가 되고, 서로에게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꿈이자, 우리가 노예살이를 뒤로한 채 여행을 떠나는 약속된 땅입니다.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은, 사순 시기가 시류를 거스르는 크고 작은 공동체적인 결정들을 내리는 때라는 것도 시사합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이것을 꼭 실천하도록 초대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단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린다”(마태 6,16). 이렇게 하는 대신, 가장 작은 이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부터 시작하여, 다른 사람들이 기쁨 가득한 얼굴을 보게 하고, 자유로운 느낌을 받도록 하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사랑을 체험하도록 합시다.

이번 사순 시기가 회개의 때가 된다면, 불안해하는 인류는 새로운 희망의 불꽃인 솟구치는 창조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찾아 나가고, 위험을 감수할 준비를 하십시오. 우리는 막대한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의 고통스러운 애원을 듣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단편적으로 치러지는 제3차 세계 대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말마의 고통이 아닌 생명을 창조하는 과정에, 그리고 마침이 아닌 역사의 위대하고 새로운 장의 시작점에 머무르며 우리의 세상을 바라볼 용기를 냅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위한 용기가 필요합니다”(리소본 대학생들에게 한 연설, 2023.8.3.). 이러한 것이 회개의 용기이고,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면서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사순 시기 여정을 축복합니다.

2024년 알링턴 교구 여름 성소 캠프

2024년 알링턴 교구 성소국에서 주최하는 CYO 남녀 학생 대상 여름 성소 캠프가 있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4박 5일 동안 사제, 부제, 신학생 및 수사, 수녀들과 함께 미사와 기도, 특강 그리고 스포츠 활동 등을 하면서 본인의 '성소'에 대해 더 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대상

현재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

(Grades 9-12 for the 2023-24 academic year)

기간

Quo Vadis SUMMER CAMP (남학생)

July 7 - 11, 2024

FIAT SUMMER CAMP (여학생)

July 14 - 18, 2024



장소

Mount St. Mary's Seminary in Emmitsburg, MD

(16300 Old Emmitsburg Rd, Emmitsburg, MD 21727)

신청

Quo Vadis SUMMER CAMP (남학생)

<https://www.arlingtondiocese.org/quo-vadis-summer-discernment-camp/>

FIAT SUMMER CAMP (여학생)

<https://www.arlingtondiocese.org/flat-summer-discernment-camp/>

- 신청 기간 : 3월 1일(9:30am) - 3월 31일(11:59pm)
- 참가는 추첨에 의해 결정되며 4월 12일에 교구에서 개별적으로 이메일로 연락



비용

\$280/camper (성소후원회에서 전액 지원)

문의

성소후원회 김만식 재권 요셉 (703) 403-1185

1 Black & Indian Mission을 위한 2차 헌금

- 이번 주일에는 Black and Indian Mission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의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2024년 주교님 사목 보조비 약정

- 매년 사순 시기 동안 실천하고 있는 주교님 사목 보조비(BLA)를 미사 중에 약정받습니다.
 - 2024년 우리 본당에 할당된 금액은 **\$195,000**입니다.
 - 희생과 사랑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고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https://www.arlingtondiocese.org/bla>

3 하상회 월례 회의

- 일시 : 2월 18일(일) 오전 11:30 (B-3,4)

4 안나회 월례 회의

- 일시 : 2월 18일(일) 오전 11:30 (A-1,2,3)

5 꾸리아 월례 회의

- 일시 : 2월 18일(일) 오전 11:30 (하상관 #4,5)

6 2024년 혼인 갱신식

- 일시 : 2월 25일(일), 10시 미사 중
- 환영식 : 2월 25일(일) 10시 미사 후 친교실 (A-1,2)
- 문의 : (703) 300-5420

7 2월 25일 모임 안내

- 루카회(60대 남녀 교우) / 요한회(50대 남녀 교우)
KoC 월례 회의

8 CYO/대학생들을 위한 커리어 소개

- 일시 : 2월 25일(일) 오후 3:30 (친교실)
- 주제 : Big data & AI Engineering
- 발표 : 이성근 예레미야(교육부장) (703) 627-1932

9 2024년 견진반 신청

- 일정 : 3월 6일(수) 오후 7시 - 오후 8:30
 - 대상 : 7학년 이상
 - 등록 기간 : 2월 18일(일)까지 (하상관 교무실)
 - 문의 : 임형준 교감 (703) 624-8196
- hyunjoonlim71@gmail.com

10 제6기 성 마리아 어머니 학교

- 일시 : 3월 2일(토) - 3일(일), 1박 2일
- 수강료 : 일인당 \$180
- 장소 : The Northern Virginia 4-H Education Center
- 참가 대상 : 어머니(나이 제한 없음, 선착순 40명)
- 접수 기간 : 2월 18일(일)까지 (친교실, 성당 입구)
- 문의 : (703) 470-1220 / (703) 864-1236

11 첫 목요 기도회

- 일시 : 3월 7일(목) 오후 7:30
- 장소 : 대성당 · 강사 : 미정
- 첫 목요일 찬미와 묵주기도, 성체 현시와 미사가 봉헌됩니다. 사순특강은 기도회로 대체합니다.
- 문의 : 박인옥 수산나 (703) 909-2980

12 하상 성인학교 2024년 봄학기 안내

- 일정 : 3월 12일(화) - 6월 7일(금)
- 등록 : 2월 25일(일) - 3월 10일(일)
오전 8시, 10시 미사 후 (친교실)
- 등록금 : \$60(점심 없음)
- 과목 : 생활영어, 수지요법, 키보드, 라인댄스, 기타, 색소폰, 서양화, 수목화, 민화 / 전시 및 발표회(일정은 미정)
- 세부 사항은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안내서 및 신청서는 주보대에 있습니다.
- 문의 : 김 율리아나 (703) 217-2775

교중미사 예물봉헌

02/18 이번 주	스프링필드 구역
02/25 다음 주	프린스 윌리엄 구역

성당 청소

02/18 이번 주	버크 구역
02/25 다음 주	애난데일, 페어팩스1 구역

성당을 아름답게 꾸며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4년 2월 11일(연중 제6주일)

봉헌금	\$ 8,886.00
교무금	\$ 10,850.00
교무금(신용카드)	\$ 4,600.00
감사 헌금	\$ 540.00
온라인 봉헌	\$ 2,480.00
합계	\$ 27,356.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1030
Fios Ch. 30

- 2024년 2월 22일(목) 오후 5:00 - 6:00
- 2024년 2월 23일(금) 저녁 8:00 - 9:00
- 2024년 2월 25일(일) 오전 6:00 - 7:00

1. 주일 강론
2. 성서 못자리 : 김덕재 신부 4복음서 강의
[제 12강] '루카복음의 수난기'

The Light is ON for You

<https://thelightison.org/>



- 사순 시기 동안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성체 현시**와 고백성사가 있습니다.
- 교구 내 모든 본당에서 실시됩니다.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 8:00 AM	화, 금	수
	• 10:00 AM(교중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7:30 PM		
월, 목, 토	• 6:00 AM	• 7:30 PM	• 11:00 AM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며...

40 주님 수난 일간의 여정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 수난 40일간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 ◆ 평일 새벽 5시 30분에 십자가의 길과 미사가 봉헌되며, 주일에는 9:25분에 있습니다.
- ◆ 십자가 복사와 초 복사를 해 주실 분들은 입구 게시판에 원하는 요일에 이름을 적어 주세요.
- ◆ 기도회에 오시는 분들은 후문을 이용해 주시고, 주차는 하상관 주차장 앞쪽 라인과 성당 앞쪽 라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성당 쪽에 주차하시는 분들은 차량 방향을 성당 쪽으로 해 주시어 차 불빛이 주택가를 향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서행을 부탁드립니다.

주일 십자가의 길

주일 십자가의 길은 오전 9시 25분에 시작됩니다. 배정된 단체는 십자가, 초복사를 선정해서 진행해 주세요.